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13 년 6 월 2 일 (다해)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3 권 2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창세 14,18-20

화답송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제 2 독서 1 코린 11,23-26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음 루카 9,11 ㄴ-17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 월 2 일	이 클라라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6 월 9 일	이 마틸다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6 월 16 일	이 클라라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6 월 23 일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성인복사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5 월 26 일	$ 365.00	_	_

*2 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기도회 모임: 6/5(수)
나눔주제: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성체조배: 6/13 (목) 저녁 6 시 30 분
6 월 성체조배는, 6 월 둘째 목요일인 13 일 저녁 6 시 30 분 ('6 시 저녁미사' 후)에 있습니다.

소공동체 구역 모임: 6/16 (주일) 오전 8 시주일 미사 후
6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6 월 셋째 주일인 6 월 16 일 주일미사 (오전 8 시) 직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공 동 체 소 식

한인공동체 평협 새 임원명단 공지
6 월부터 1 년간 한인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평협임원들입니다.
회장: 박 니콜라스, 총무: 이 요한,
교육: 유 요한, 전교: 박 마가렛, 전례: 정 안드레아,
재무: 이 그레이스, 홍보: 손 아놀드, 총구역장: 김 헬레나.
1 구역장: 이 그레이스, 2 구역장: 이 마틸다.
3 구역장: 김 헬레나, 4 구역장: 유 마리아.
주님의 일을 충실히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평협 임원회의: 6/11(화) 저녁 7 시
6 월 한인공동체 임원회의는, 6 월 둘째 화요일인 11 일 저녁 7 시에 있습니다.

제 1 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 6/9 (주일) 정오
이 골프대회는 한인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제 1 회 자선기금 마련' 을 위한 골프대회입니다.
일시: 6 월 9 일(주일) 정오
장소: **Rio Bravo Country Club** (15200 Casa Club Dr., Bakersfield)
참가비: **1 인당 $100** (입장료, 그린 및 카트, 상품 등)
Check payable to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접수 마감: 5 월 24 일 (금).
문의처: 이 요한,김 마론, 이 빈센트, 박 니콜라스 형제님,
이 그레이스, 박 마가렛자매님.
*타지역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며, 한인공동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신록이 더욱 눈부신 이유

한비야 비야 | UN 자문위원

지난주 UN 회의를 하느라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주일미사는 조용하게 드리고 싶어 근교 성당에 갔다가 우연히 리차드 버튼의 묘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영화 '클레오파트라'에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함께 나오는 잘 생긴 영국 남자배우입니다. 들꽃이 무성한 묘지 앞 비석에는 '리차드 버트 1925-1984 년'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렇게 유명한 배우라면 '나는 배우다' 정도의 묘비명은 있을 법한데 말입니다.

왜 갑자기 묘비명 타령이냐고요? 실은 얼마 전 참가한 영성수련 과정 중에 했던 '유서와 묘비명 만들기'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서 쓰기. 가족들에게 "모두들, 내가 떠난다고 슬퍼 말아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요."라며 쿨하게 시작한 유서가 어느새 노트 다섯 장을 넘겼습니다. 우선 제 인생을 환하고 풍요롭게 해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정말로 고마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사람들과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다행히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소리내어 엉엉 울면서, 촛농처럼 흐르는 눈물을 공책 위로 뚝뚝 떨어뜨리며 써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미안한 사람이 많이 떠오르던지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걸....그러나 얼굴 마주보며 더이상 미안하다 말할 수 없으니 더욱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과제는 묘비명 만들기. 솔직히 전느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체 건강하고 정신도 매우 건강한 이런 새파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각본대로 '내일'이 제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떠나겠습니다. 이 무대의 '총연출'이신 하느님은 그동안 저라는 '배우'에게 딱 맞는 역을 주셨습니다. 가끔 제 역량 밖의 일을 맡기실 때면, 도대체 날 어떻게 믿고 이러시나 하는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온몸을 떨곤 했습니다.

그러니 맡은 역할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 열정, 에너지, 기도 등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일을 아낄 이유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다 총연출자이신 하느님께서, "네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 무대에서 아웃!" 이라고 명하시면, 기꺼이 무대를 내려갈 것입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안녕."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 묘비명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몽땅 다 쓰고 가다.'
묘비명 생각 때문인지 초여름의 신록이 더욱 눈부시고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충분히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 이것이 언젠가 무대를 내려갈 우리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아닐까요?

<서울주보에서>